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

The Influence of Family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reschoolers'
Temperaments o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이영미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민하영*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Lee, Young-Mi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eou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ifferences i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ccording to various family socio-demographic variables (father's education level, income, mother's employment, preschooler's sex and age) and preschoolers' temperaments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hese independent variables (as well as preschooler's temperamen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27 fathers whose children were preschoolers between the ages of 3 and 5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Keoungbok province, South Kore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techniques: two-way ANOVA, interaction effect,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partial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2.0). Results of the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ccording to the fathers' education level, income, and preschoolers' temperaments.
- (2)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and preschoolers' temperaments on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 (3)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athers' educ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fathers' education and preschoolers' temperaments was also found to have predictive power over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주요어(Key Words) : 아버지 양육 참여(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유아 기질(preschooler's temperaments), 어머니 취업 (mother's employment)

* 주 저 자 : 이영미(E-mail : selfdis@hanmail.net)

** 교신저자 : 민하영(E-mail : hymin@cu.ac.kr)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서 주 책임자로서 역할하기 보다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등의 보조자 또는 주변인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아버지의 근본적 역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Lamb, 1997)라고 표현 될 만큼 현대 사회 내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 내 어머니의 자녀양육 활동에 있어 남편인 아버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원체계이고(이완정 등, 1997; Brunelli et al., 1995; Simon et al., 1993),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최근의 현실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출산휴가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최근 여성가족부에 의해 실시(www.mogef.go.kr)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달 6일을 육아데일로 정하여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산을 촉구하는 노력(www.6aday.co.kr)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의미 있는 양육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강조되는 것만은 아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김광웅 · 이인수, 1998; 최경순, 1992)이나 사회적 적응, 도덕성 또는 친사회성(정현희 · 최경순, 1992; 최경순 · 정현희, 1995; Coley, 1998; Coosey & Fondell, 1996)과 같은 사회성 발달 뿐 아니라 학업 성취(Flouri & Buchanan, 2004)와 같은 인지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양장애, 1999; Cummings & O'Reilly, 1997; Geary, 2000; Lamb, 1997; Parke, 2000).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사회 정서 및 인지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얻기 쉽지 않은 동적이고 활동적인 경험을 통해 아동은 보다 폭넓고 역동적이며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지적 자극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보다 적응적인 발달을 성취하는 토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을 유발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아버

지의 영향력이 어머니와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동의 환경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김정 · 이지현, 2005)으로써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 내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간접적 기여가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아동이 적응적 발달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는 핵가족화 및 취업모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김정 · 이지현, 2005; 신숙재, 1997)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독립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보고 있을 뿐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 규명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양육 참여와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 간 관계 규명은 선행 연구(김정 · 이지현, 2005; Gaunt, 2005)에서 기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정과 이지현(2005)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유아의 성별, 유아의 연령, 어머니 취업 유무 등 가족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생활지도와 가사활동이, 만 6세보다 만 4세인 경우 여가활동이, 전업모보다 취업모인 경우 아버지의 여가활동이나 가사활동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의 관계는 Gaunt(2005)의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36개월에서 6세 사이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모의 아버지는 전업모보다 높은 양육참여를 나타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버지 양육 참여간의 관계 유무만을 살펴볼 뿐 아버지 양육 참여에 미치는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조절 효과와 같은 구체적 효과 규명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 가계 소득, 어머니 취업, 유아의 성별 및 연령 등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부모와 아동의 관계 형성에서 부모의 특성 외에 아동의 특성도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데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이 지적(Chess & Thomas, 1991)되면서 부모-아동관계에서 아동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버지의 특성 외에 참여 대상인 유아가 지니는 기질적 특성 등의 성격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아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저하시키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김미숙·문혁준, 2005; 남혜순, 2003; 최형성, 2005)임을 고려해 볼 때, 유아의 적응적이지 않은 기질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아 기질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유아 기질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경험적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유아 기질의 영향을 앞서 언급한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조절 변인의 대표적 예로 간주(장휘숙, 1994)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 양육 참여에 미치는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주 효과 외에 유아 기질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만약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유아 기질의 영향력이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진다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유아 기질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수단이나 방안을 모색할 때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주요 통로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어 아버지는 의미있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수가 많지 않은 실정(최경순, 1992; Crockett et al., 1993)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관련된 가정내 요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는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에 대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가정 내 신체적 돌봄이 강조되는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는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며 바깥놀이가 증가하는 시기다. 뿐만 아니라 확대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규범이나 규율에 대한 지도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다. 이러한 유아기 시기는 어머니의 신체적이며 표현적 양육만큼이나 아버지의 활동적이며 동적인 양육 참여(Hosley & Montemayor, 1997; Way & Gillman, 2000)가 요구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유아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 4, 5세 유아의 아버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277명의 아버지 연령은 대부분 30대로 나타났다. 30세에서 35세 미만이 100명(36.1%), 35세에서 40세 미만이 129명(46.6%), 40세 이상이 48명(17.3%)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70% 이상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명은 23명(8.3%), 2명 203명(73.3%), 3명 이상은 51명(18.4%)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79명(28.5%), 전문대졸이 67명(24.2%), 대졸 이상이 131명(47.3%)이었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전업모가 185명(66.8%)이었고 취업모가 92명(33.2%)이었다. 유아는 만3세가 65명(23.5%), 만 4세가 97명(35.0%), 만5세가 115명(41.5%)이었고 남아가 153명(55.2%) 여아가 124(44.8%)명이었다.

2. 연구도구 및 자료 분석

1) 아버지의 양육 참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경순(1993)이 제작한 아버지 참여도 검사 도구를 최한순(1995)이 유아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25문항으로 '자녀의 놀이 상대가 되어준다', '자녀와 취미생활을 함께 한다' 등의 여가활동참여 12문항, '자녀가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이야기 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등의 생활지도참여 9문항, '설거지를 돕는다', '잠자리 이부자리를 정돈한다' 등의 가사활동참여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1점)'에서 '자주 하고 있다(5점)'의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척도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평균은 77.79(표준편차 12.87)이었고 문항 간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하위척도별 문항 간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는 여가활동이 Cronbach's $\alpha=.88$ (평균 38.43, 표준편차 6.92), 생활지도는 Cronbach's $\alpha=.88$ (평균 20.03, 표준편차 5.09), 가사활동은 Cronbach's $\alpha=.83$ (평균 10.33, 표준편차 3.50)이었다.

2) 유아 기질

Presley와 Martin(1994)이 개발한 TABC(Temperament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척도 중 7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용 유아의 적응적 기질 척도를 사용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의 집을 몇 번 방문한 후에는 이내 친숙함을 느낀다', '문제가 생겨 짜증이 날 때 우리 아이는 소리치거나 울기보다 짧게 꾸짖는다', '일과 시간이 바뀌어도 우리 아이는 쉽게 변화에 적응한다' 등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음(1점)에서 '언제나 그러함(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문항 간 내적 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평균 27.65, 표준편차 4.45)로 나타났으며 점수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임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절차

경북지역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 4, 5세 유아의 아버지 3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중류층 주거 지역 내 임의 표집하여 선정된 어린이집 중 질문지 조사를 허락한 3개 어린이집을 연구요원이 방문하여 만3, 4, 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의 지도를 통해 원생에게 배부하였다. 원생을 통해 배부된 질문지는 일주일 기간을 두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 23부를 제외하고 277부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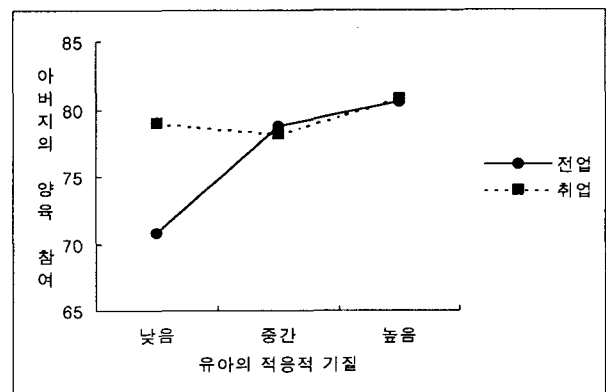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이원변량분석, Scheffe'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 1>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

<연구문제 1>을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상위 30%를 기준으로 하여 유아의 기질을 적응성이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집단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버지의 연령, 교육 수준, 가계 소득, 어머니의 취업유무, 유아의 성별, 유아의 연령 등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 및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교육 수준이 낮은 아버지에 비해,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아버지에 비해 높은 양육 참여를 나타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의 기질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 기질이 적응적일때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유아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유아 기질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영향받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전업모의 경우 유아 기질에 따라 아버지 양육 참여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어머니가 전업인 경우에는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 않을 경우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인 경우에



<그림 1>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유아 기질 간 상호작용

<표 1>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

독립변인	구 분	SS	df	MS	F
아버지 교육	교육(A)	1785.95	2	892.97	5.79**
	유아 기질(B)	1262.51	2	631.25	4.10*
	A×B	536.64	4	134.16	.87
	오차	41308.82	268	154.14	
가계 소득	소득(A)	1359.40	1	1359.40	8.71**
	유아 기질(B)	1942.33	2	971.17	6.23**
	A×B	134.32	2	67.16	.43
	오차	42275.34	271	156.00	
어머니 취업 유무	어머니 취업(A)	404.92	1	404.92	2.60
	유아 기질(B)	1313.77	2	656.89	4.21*
	A×B	1035.46	2	517.73	3.32*
	오차	42283.92	271	156.03	
유아 성별	유아 성별(A)	48.53	1	48.53	.31
	유아 기질(B)	2261.42	2	1130.71	7.11***
	A×B	596.50	2	298.25	1.88
	오차	43107.08	271	159.07	
유아 연령	유아 연령(A)	43.74	2	21.87	.14
	유아 기질(B)	2098.13	2	1049.07	6.55**
	A×B	768.81	4	192.20	1.20
	오차	42918.79	268	160.15	

주) *p<.05, **p<.01, ***p<.001

<표 2>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 평균(표준편차)

독립변인(유의수준)	구 분	아버지 양육 참여 평균(SD)/Scheffe'
아버지 교육 (p<.01)	고졸(79)	73.11(1.41) ^a
	전문대졸(67)	79.02(1.54) ^b
	대졸이상(131)	79.99(1.10) ^b
가계 소득* (p<.01)	300만 이하(119)	75.18(13.64)
	300만 초과(158)	79.76(11.93)
어머니 취업유무 (ns)	전업모(185)	77.15(13.32)
	취업모(92)	79.08(11.87)
유아 성별 (ns)	남아(153)	77.63(12.43)
	여아(124)	77.98(13.44)
유아 연령 (ns)	만3세(65)	79.20(11.88)
	만4세(97)	77.38(13.72)
	만5세(115)	77.34(12.71)
유아 기질 (p<.01)	적응 낮음(86)	74.05(14.04) ^a
	적응 중간(106)	78.55(11.14) ^{ab}
	적응 높음(85)	80.64(12.90) ^b

주) * 도시근로자 월평균 경상소득이 305만원인 점(통계청, 2005)을 고려하여 가계 소득을 3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음.

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더 낮았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과 표준편차 및 Scheffe' 검증 결과를 <표 2>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 고졸인 경우에 비해 양육 참여가 의미있게 더 높았고 유아 기질이 적응적인 경우에는 적응적이지 못한 경우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의미있게 더 높았다.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의 교육과 가계 소득과 유아 기질을 중회귀분석의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위계적 중회귀 분석이 적합함(양병화, 2002)을 고려하여, 연구문제 1)에서 언급한 가족 사회인구학적변인(A) 중 아버지의 교육을 1차 투입하고 가계 소득을 2차 투입하였으며, 유아의 기질(B)을 3차 투입하였다(<표 1>참조).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가계 소득 전에 투입한 것은 교육이 가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가계 소득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에 의해 민감히 영향받는 변인으로,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가계 소득의 영향이 가계 소득의 독립적 영향이기 보다 가계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수준에 의해 매개된 영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간 적률상 관계수가 .36이하로 나타났으며, VIF(분산확대인자)는 1.02에서 1.16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1차 투입한 1단계 회귀분석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해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5% 정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5, p<.001$).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가계 소득의 설명력을 살펴 보기 위해 2단계에서 가계 소득 변인을 투입했으나 가계 소득 변인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변량분석에서 유의성이 검증된 가계 소득의 유의성이 중회귀분석에서 사라진 것은 아버지 양육 참여에 미치는 가계 소득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의해 매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표 5>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교육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는 $r=.230(p<.001)$ 로 유의미했으며, 이는 가계 소득을 통제할 경우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r=.182, p<.001$).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가계 소득간의 유의한 상관관계($r=.175, p<.01$)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통제할 경우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101, p=.09$). 이러한 결과에 의거한다면 변량 분석에서 나타났던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가계 소득의 유의한 영향은 가계 소득의 영향이기 보다 아버지의

<표 3>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아버지 교육	가계소득	유아 기질
아버지 교육	1		
가계 소득	.363***	1	
유아 기질	.05	.130*	1

주) * $p<.05$, *** $p<.001$

<표 4>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 가계 소득, 유아 기질의 위계적 중회귀분석 결과 n=277

단계	독립변인	아버지 양육 참여		R ²	ΔR ²	F값(df)
		B	β			
1단계	상수	67.47		.05		15.37*** (1,275)
	교육	3.18	.23***			
2단계	상수	65.39		.06	.01	9.14*** (2,274)
	교육	2.66	.19**			
	소득	.75	.11			
3단계	상수	52.63		.08	.03	9.20*** (3,273)
	교육	2.35	.17**			
	소득	.74	.10			
	유아 기질	.50	.17**			

주) * $p<.05$, ** $p<.01$, *** $p<.001$

<표 5> 아버지 양육 참여와 아버지 교육 및 가계 소득 간 부분상관관계

변인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참여(소득 통제시)	아버지 양육참여(교육 통제시)
교육	.230***	.182***	.101
소득	.175**		

주) * $p<.05$, ** $p<.01$, *** $p<.001$

교육 수준에 의해 매개되어 나타난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독립 변인으로 유아의 적응적 기질 변인이 3단계에서 투입되었을 때,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유아의 기질이 설명할 수 있는 영향력은 8%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유아의 기질의 설명력은 3%($\Delta R^2=.03$)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나타낸 설명력 5%($R^2=.05$)에 비해 약간 적게 나타났으나 상대적 설명력을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 β 값은 각각 .17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유아 기질의 설명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가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에 따른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 및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에 대한 독립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취업,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나 가계 소득 및 유아 기질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가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이완정 등, 1997; 황순영 등, 2005; Gaunt, 2005)를 지지하는 것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 활동이 높은 것은 유아 양육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가계 소득이 높을 때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가 높은 것은, 가계 소득의 영향이라기 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다는 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양육 참여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가계 소득을 통제 한 경우에도 의미 있게 나타난 반면, 가계 소득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간의 유의한 관계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점은 아버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보다 많이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 기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 기질이 규칙성이 적으며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유아 기질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 선택적 활동의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유아 기질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아버지는 자녀의 기질이 적응적이거나 적응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자녀 양육 참여 활동에 큰 변화가 없으나, 어머니가 전업모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유아 기질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점이다. 유아 기질이 어느 정도 적응적이라 평가할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취업과 전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유아 기질이 적응적이지 못하다고 인지할 경우엔 전업 어머니의 아버지 양육 참여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전업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상당히 탄력적(voluntary)일 수 있음(Hosley & Montemayor, 1997)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전업인 경우 아버지는 아마도 양육의 주 책임자를 어머니로 더욱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유아의 기질이 적응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경우 취업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아버지에게 비해 아버지 자신의 양육 참여를 쉽게 철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선택적(voluntary)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 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Gaunt, 2005)와는 다르지만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관계없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정현희·최경순, 199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현희와 최경순(1995)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남녀 역할에 대한 전통적 구분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서양과 달리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근로시간이나 직장 내 근무 여건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 간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 그리고 유아 기질을 토대로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유아 기질의 영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학력이 높을 때, 그리고 유아 기질이 보다 적응적일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교육 기간 동안 제공되는 계몽 활동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한편 유아의 기질이 아버지 양육 참여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녀 양육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Brunelli et al., 1995; Simon et al., 1993)로써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활동 시 유아 기질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내용 뿐 아니라 유아 기질에 적합한 아버지 양육 참여 활동의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의 아동 발달을 위해 부모-자녀간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이 강조되고 있음(최영희, 1993; 한세영·박성연, 1996; Chess & Thomas, 1991)을 고려해 볼 때, 유아 기질에 적합한 아버지 양육 참여 방법은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유아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아버지에 의해 부정적 양육방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문혁준, 1998)과 유아 기질이 적응적이지 못할 때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적응적이지 못한 기질을 가진 유아는 2중 3중의 발달적 손해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권장만큼이나 유아 기질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만3, 4, 5세 유아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설명하고 양육 참여 확산에 도움을 줄 정보나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 증진을 위한 실용성 있는 아버지 육아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접수 일: 2006년 05월 15일
- 심사 일: 2006년 05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6년 07월 24일

【참 고 문 헌】

- 김광웅·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6.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남혜순(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 *아동교육*, 12(2), 121-135.
- 문혁준(1998).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 훈육방법. *대한가정학회지*, 38(6), 29-41.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병화(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양장애(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 I: 아버지의 역할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지향. *아동학회지*, 20(1), 135-145.
- 여성가족부(2005). www.mogef.go.kr
- 여성가족부(2005). www.6aday.co.kr
- 이완정·현은강·최혜란(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보육인지도가 아버지의 보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63-77.
- 정현희·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판단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장희숙(1994). 발달심리학 연구에서의 중재와 조절: 자기효율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210-219.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최경순·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연구(I):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양육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17-226.
- 최형성(2005). 남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http://kosis.nso.go.kr>
- 한세영·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허선자(1993).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한국교육학회*, 31(5), 131-152.
- 황순영 · 정영숙 · 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역할 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Brunelli, S. A., Wasserman, G. A., Rauh, V. A., Alvarado, L. E. & Caraballo, L. R.(1995). Mothers' reports of paternal support: Associations with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errill-Palmer Quarterly*, 41, 152-171.
- Chess, S. & Thomas, A.(1991). Temperament and the concept of goodness of fit. In J. Strelau & A. Angleitner (Eds.), *Explorations in tempera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Plenum.
- Coley, R.(1998). Children's socialization experiences and functioning in single mother households: The importance of fathers and other men. *Child Development*, 69(1), 219-230.
- Coosey, E. C. & Fondell, M.(1996). Spending time with his kids: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fathers' and children'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693-707.
- Crockett, L. J. Eggebeen, D. J. & Hawkins, A. J.(1993). Father's presence and young children's behavioral and cognitive adjustment. *Family Relations*, 14, 355-377.
- Cummings, E. M. & O'Reilly, A. W.(1997). Fathers in family context: Effects of marital quality on child adjustment. In M.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pp. 49-65). New York: Wiley.
- Flouri, E. & Buchanan, A.(2004). Early father's and mother's involvement and child's later educational outcom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141-153.
- Gaunt, R.(2005). The role of value priorities in paternal and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643-655.
- Geary, D. C.(2000). Evolution and Proximate Expression of Human Paternal Inve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6(1), 55-77.
- Hosley, C. A. & Montemayor, R.(1997). Fathers and adolescent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pp. 162-178). New York: Wiley.
- Lamb, M. E. (Ed.)(1997).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3rd ed.). New York: Wiley.
- Parke, R. D.(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43-58.
- Presley, R. & Martin, R.(1994). Toward a structure of preschool temperament: Factor structure of the temperament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62(3), 415-448.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Way, N. & Guillman, D. A.(2000) Early adolescent girl'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3), 309-331.